

울진의 극장은 처음에는 본 군의 울진읍 소유이던 읍내리 소재 문화관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 등을 하여 오다가 1959년 군 당국에서 민간인에게 불하함으로써 민간 경영 측에 의한 극장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후 울진군에는 울진 극장 이외에 죽변극장과 후포 극장이 개인 소유로 상설되게 되었다. 울진 극장의 경우 2층 건물에 588석 입석 87석 등 모두 합쳐 675석을 갖추고 있었고, 후포 극장의 경우는 최규택 소유로 1·2층 합쳐 좌석 376석 입석 56석 등 모두 423석이었고 죽변극장은 1, 2층 합쳐 좌석 433석 입석 120석 등 모두 553석의 좌석을 갖추었다.

울진의 극장들은 1970년대 초부터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고 1978년 3월 죽변극장이 문을 닫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울진 극장이 폐업하였고, 후포 극장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1985년 8월에 폐업하게 되었다. 그 후 1986년 11월부터 울진읍 읍내 3리에 관람석 120석 규모의 소극장이 생겨나 영화 상영을 해 오다가 폐업했다.

제2절 문화예술 행사²⁰⁹

1. 문학

문학 행사는 울진문학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울진문학회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울진문학』을 발간하였고, 시낭송회와 지역 문화유적 답사, 지역문화제 백일장 주관, 시화전 개최, 중앙문단과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학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96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 울진문학회와 후원 기관으로 울진저널, 덕구호텔이 함께한 『분단시대 작가정신』이란 주제로 심포지움[강연, 토론회 등]이 있었다.

2. 음악

울진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울진군 음악회가 개최됐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울진군 학생 음악회, 울진군 교사 음악회, 울진 군민을 위한 음악회 등이며, 기타 해군 1020부대 군악 연주회, 벨라 앙상블 초청 음악회, 무의탁 노인을 위한 성탄축하성가제 등이 있다.

2004년도에는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D-365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합

209.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의 내용은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을 참조했다.

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했다. 2005년 7월에는 근남면 진복리 고인돌스쿠버 앞 해변에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마당 다물국악관현악단이 국악의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우리 가락을 알리는 공연으로 소리마당 자체 경비와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정성으로 모두 무료로 공연을 하였다. 2005년 8월 5일과 6일에는 엑스포 주 공연장에서 친환경 열린 콘서트가 연이어 개최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천추영]에서 지역 주민들과 직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양오페라단[단장 김경희]을 초청해 클래식의 향연을 펼쳤다. 이처럼 여러 장르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음악을 매년 관내 학생들이 선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초청공연을 함으로써 울진군 내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주고 있다.

3. 미술

울진의 시각예술은 지역적 한계와 부족한 여건으로 넓고 두꺼운 저변 층을 형성해 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창작의 열기는 식지 않아 많은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해왔고 유영국이라는 매우 걸출한 화가도 배출되었다. 울진의 대표적인 화가 유영국(劉永國)[1916~2002]은 1930년대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학원 미술과에서 이중섭·안기풍·김병기·문학수 등과 함께 신사실파(新事實派)를 결성하였고, 1957년에는 「모던아트협회」에 참여하였다. 그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모더니즘 미술을 이끌었다. ‘산’을 모티브로 선, 면, 색채로 구성된 비구상적 형태로서의 자연을 탐구하였다.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적 패턴의 면 분할, 합축적이고 절제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그의 추상화에는 장대한 자연의 승고미가 응축되어 있다. 1938년 제2회 일본 자유미술전 최고상과 1976년 제21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본상 수상이 있다. 그는 수화 김환기나 박수근과 비교해 평가절하된 면이 많다. 앞으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작가다.

4. 연극과 영화

울진의 연극은 2008년 3월에는 연극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산시립극단을 초청하여 연극 「수전노」를 공연했다.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무료로 공연된 「수전노」는 프랑스 고전주의 극작가 몰리에르의 희곡으로 고대의 희극적 인물 구두쇠를 근대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울진의 극장은 울진원자력홍보관과 울진읍 청소년회관 그리고 평해읍 울진문화예술회

관 등이 과거 극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각 장소에서는 울진군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화관이 없는 울진군민에게 영화의 욕구를 대신해 주고 있다.

자연적 풍광이 아름다워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2006년에 상영된 영화 「가을로」는 울진의 성류굴과 불영사 등에서 촬영하였고, 이것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가을로」 영화 촬영지 관광 등의 관광객 유발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2004년 3월 13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방영된 SBS 주말 미니시리즈 ‘폭풍속으로’는 죽변항에 세트장을 짓고 촬영하였고 이후 울진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착공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7년 11월 무대 기계와 음향, 조명 설치를 완료한 울진문화예술회관이 만 2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6일에 개관하였다.

오상택